

한국수어의 반복(Reduplication) 연구

이 영 재(전주선화학교)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한국수어의 반복과 의미 변화 연구 |
| 2. 선행연구 | 4. 나가기 |

국문초록

한국수어는 한국 농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고유의 문법 체계가 존재한다. 다른 구어언어에서 볼 수 없는 문법체계이다. 그 중 하나가 반복 문법이다. 수어는 문법 전반에 걸쳐 반복을 사용한다. 물론 구어언어도 나름대로 반복을 사용하여 수 표현을 하거나 다른 뜻을 갖는 단어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구어언어의 반복은 문법 체계 중에서 일부에서 나타나는 등 그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반면 수어의 반복은 문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등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수어의 반복은 동사-명사쌍, 명사의 반복, 동사의 반복, 문장 유형을 만드는 반복,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반복 등이 있다. 동사-명사쌍은 그 수어를 구성하는 조건이 변하지 않고 단지 1회 반복인지 2회 반복인지에 따라 가리게 되는 쌍을 말한다. 1회 반복할 때는 크게 하지만 2회 반복할 때는 작게 한다. 명사의 반복은 명사가 되는 수어가 2회 이상 반복함으로써 그 명사의 복수형이 되는 반복을 말한다. 동사의 반복은 수어 동사가 측면 이동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반복이다. 그러한 동사의 반복은 동사 자신이 아닌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형을 만드는데 그것이 대개 배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반복은 수어가 가진 본래의 뜻이 변

질되어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하는 반복을 말한다.

키워드 : 수어, 한국수어, 미국수어, 독일수어, 반복, 동사-명사쌍, 명사의 반복, 동사의 반복, 수어 문장 유형

1. 들어가는 말

반복(reduplication)¹⁾은 구어언어(spoken language)와 수어언어(sign language) 모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적 활동(morphological process)이다. 구어언어의 반복은 음절(syllable), 단어(word) 등이 반복(repeating)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구어언어학은 반복(reduplication)이 적지 않은 많은 지역에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언어 현상임을 밝히고 있다(Carl Rubino, 2005).

Susan Fischer(1973)이 American Sign Language(ASL)의 반복에 대해 연구한 이래 여러 나라의 수어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실 수어의 반복은 ASL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수어에 공통되는 언어 현상이다.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KSL)도 따라서 반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그런데 수어의 반복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수어의 반복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후부터 반복은 reduplication을 가리킨다. 선행연구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반복과 관련 있는 용어는 여럿 있는데, 즉 reduplication, iteration, repetition, habitual 등이 있다. 이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reduplication 용어를 사용하여 반복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덜된 탓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 하고 확인된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차후 반복 관련 용어의 개념 정리가 되면 용어별 개념 차이를 다루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국 수어의 반복 양상과 비교해 보는 목적도 있다. 반복은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중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데 ‘중첩’이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작은 반면에 수어의 반복은 수어 문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형태적 활동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첩보다 반복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를 위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2005)에서 펴낸 『한국수화사전』은 『수어사전²⁾』, 국립국어원 인터넷판 『한국수어웹사전』은 『웹사전』, 한국농아인협회가 펴낸 『한국수어』(2018)은 『한국수어』로 줄여서 표현한다. 한국수어를 설명할 때 논의의 기준은 『수어사전』과 『웹사전』, 『한국수어』로 하고 그림은 『웹사전』에서 인용하였다.

2. 선행연구

Carl Rubino(2005)

Rubino는 Reduplication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어 안에서 의미·문법적 목적을 위하여 음운 자료를 체계적으로 반복(repetition)하는 것은 전 세계의 상당수 언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그것은) 형태적 장치인 반복(reduplication)으로 알려져 있다..(Carl Rubino 2005, p11)

Rubino는 reduplication을 partial reduplication과 full reduplication으로 나눈다.(Carl Rubino, 2005). full reduplication은 단어 전체, 어간(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접사를 갖는 어근), 또는 어근 등의 반복을 말한다.

2) 현재 국립국어원이 온라인상에서 『한국수어사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전에는 『한국수화사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1) Tausug(Austronesian, Philippines)의 full word lexical reduplication

- ㄱ. *dayang* 'madam'
- ㄴ. *dayangdayang* 'princess'
- ㄷ. *laway* 'saliva'
- ㄹ. *lawaylaway* 'land snail'

또는 동사화 접미사 mag-, -(h)un를 동반한 full root reduplication

- (2) ㄱ. *mag-bichara* 'speak'
- ㄴ. *mag-bichara-bichara* 'spread rumors, gossip'
- ㄷ. *mag-tabid* 'twist'
- ㄹ. *mag-tabid-tabid* 'make cassava rope confection'
- ㅁ. *suga-hun* 'be heated by sun'
- ㄹ. *suga-suga-hun* 'developed prickly heat rash'

(Hassan et al 1994)

Full Reduplication에 비해 Partial Reduplication은 그 양상이 복잡하다. partial reduplication은 단순히 자음 반복이나 모음 장음화로부터 거의 완전한 어간의 반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 Pangasinan(Austronesian, Philippines)의 복수형을 만드는 partial reduplication

reduplication shape	Examples
CV-	<i>toó</i> 'man' > <i>totoó</i> 'people'
-CV-	<i>amígo</i> 'friend' > <i>amimígo</i> 'friends'
CVC-	<i>báley</i> 'town' > <i>balbáley</i> 'towns'
C ₁ V-	<i>plato</i> 'plate' > <i>papláto</i> 'plates'
CVCV-	<i>manók</i> 'chicken' > <i>manómanók</i> 'chickens'
Ce-	<i>duég</i> 'water buffalo' > <i>deréweg</i> / <i>dedeueg</i> / 'water buffaloes'

Susan Fischer(1973)

Fischer(1973)은 ASL의 반복(reduplication)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를 한 사람인데 Fischer는 수어의 반복이 구어의 반복과 다르다고 한다. 구어의 반복은 대개 한 번 정도 반복되는 반면, 수어의 반복은 일반적으로 두 번 이상 반복되며 그 이상의 반복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 예로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과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이 있음을 말하고 그 사이의 의미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둘 이상의 반복은 구어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없다고도 했다.

Fischer는 reduplication을 Fast와 Slow로 나누고, Fast reduplication은 다시 [+Fast] 자질로 나누고, 자질이 [+Fast]이면 초분절 음소(suprasegment)인 Horizontal Movement(수평이동)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Slow reduplication은 항상 원 동작(circular motion)을 수반하며, 천천히 반복(repeated)되고, 시간적으로 길게 끄는 동작, 즉 durative(지속성) 자질을 가지며, 때로는 흔드는 동작인 자질 [+Rocking]과 관련이 있고, 또 종종 얼굴 표현(facial expression)³⁾을 수반한다고 한다.

특히 Fischer는 소절 '3.2. fast reduplication'에서 자질 [+Horizontal]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규칙을 제안한다.

IR⁴⁾ (3) V ---> Plural subject or object/[+Horiz]

위 공식의 뜻은 동사가 반복을 하면서 수평이동([+Horiz])을 하면 복수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절 '3.1.2.2. 동사의 반복'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해석규칙도 제안하였다.

3) facial expression은 종종 '얼굴 표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acial expression은 언어 단위가기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얼굴 표면에 드러나는 뜻인 '얼굴 표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 '표현'은 '표정'을 포함하지만 '표정'보다 나타내는 범위가 넓다.

4) IR : Interpretive Rule

IR (4) V ---> Habitual/[-Horiz]

이 규칙에 대한 Fischer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필자는 직관적으로 ‘제자리 반복’으로 해석하였는데 그것은 자질 [-Horiz]이 근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 소절 ‘3.1.2.2. 동사의 반복’에서 논의한다⁵⁾.

Ronnie B. Wilbur(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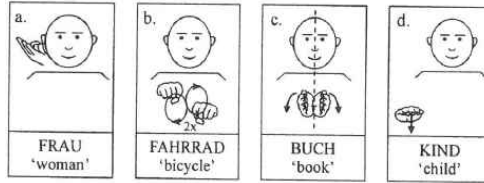
Wilbur(2005)는 reduplication을 다른 상적 형태(aspectual form)를 만들기 위해 술어를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Wilbur(2005)는 음운 층위에서 repetition과 reduplication을 구별하였는데 repetition은 파생형태론의 일부로서 수어 명사의 복수형 형성 과정에 관여하여 어휘범주에 영향을 주는 자질로 이해하고, reduplication은 술어의 활동에 관여하여 술어의 상(aspect)과 논항 구조에 영향을 주는 자질로 이해하였다. Wilbur, Klima & Bellugi(1983)은 reduplication이 공간과 시간의 음운 수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는데 공간적 수정은 논항에 대한 정보 수정에 관여하고, 시간적 수정은 술어의 상에 대한 정보의 수정에 관여한다고 한다. Wilbur(200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사는 하나의 큰 수동을 가지며, 명사는 반복되는 작은 수동을 가진다고 하였다.

Roland Pfau & Markus Steinbach(2005)

Pfau & Steinbach(2005)는 독일수어의 reciprocal과 sideward를 연구했는데 여기서는 sideward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Pfau & Steinbach(2005)는 수(number)의 표현은 접사로 한정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언어에서 수의 표현에 접사, 반복 및 제로 표지가 있다고 하면서 독일수어의 수 표현은 인도유럽어계인 독일어와 다르게 반복과 제로 표지로 설명하려 했다.

5) 내용 파악이 되면 이러한 필자의 해석이 변경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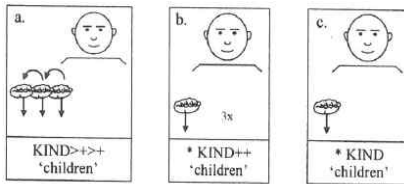
독일수어의 반복 및 제로 표지에 의한 복수 표현은 아래와 같다.



(그림1) 독일수어의 단수 명사들

(1) sideward reduplication에 의한 복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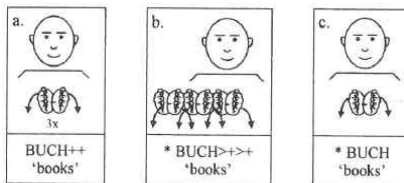
그림에 *표시가 있는 것은 비문임을 나타낸다. (그림1d)과 달리 (그림2a)는 측면이동 반복으로 복수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2) 'child'의 복수 표현

(2) simple reduplication에 의한 복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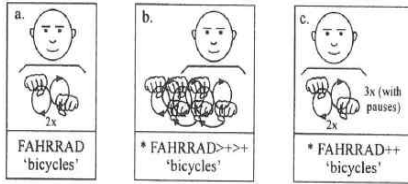
(그림1c)는 1×이지만 (그림3a)는 3×의 반복으로 복수형을 표현하고 있다. 'simple'은 제자리 반복을 말하는 것 같다. 독일수어 (그림3b)는 비문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한국수어는 비문이 아니다. 수어 <책>은 독일수어랑 같다.



(그림3) 'book'의 복수표현

(3) zero marking에 의한 복수 표현

(그림1b)와 (그림4a)는 동일하지만 zero marking에 의한 복수 표현이라고 한다. 독일수어에서는 비문이지만 한국수어는 (그림5)로 (그림4b)와 같은 방식으로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할 수 있다.



(그림4) 'bicycle'의 복수 표현 (그림5) KSL <자전거>

장세은(1997)

장세은(1997)은 반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Supalla and Bellugi(1978)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동자질'이 동사와 명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동자질은 '빈도수, 방향성(directionality), 방법(manner)'이라는 세 가지 자질로 구분하면서 미국수어 SIT/CHAIR 동사-명사쌍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음운중첩현상을 논의하는 절에서 Goldsmith(1976)의 자립분절음운론, McCarthy(1979, 1981)의 음운층위가설을 기초한 비연속형태론, 그리고 Clements(1985)의 계층적 자질 기하이론 등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으면서 수어의 음운중첩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세은(1997)이 논의한 수어의 음운중첩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장세은(1997)이 말한 '이동자질'은 사실 반복(reduplication)과 관련이 있다.

3. 한국수어의 반복과 의미 변동 연구

한국수어의 어휘 목록에서 거의 모든 수어 어휘가 반복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수어의 어휘 목록에서 반복이 되는 것보다 반복이 안 되는 수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자연스럽게 않은 일부 수어는 예외이다⁶⁾. Fischer(1973)은 ASL의 거의 대부분의 발화(speech)에서 반복(can reduplicate)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수어의 반복은 반복이 되는 수어와 반복이 안 되는 수어로 구분한다. 반복이 가능한 수어라도 반복의 횟수가 의미 변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개별 수어에 따라 다르다. 아래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지만 수어의 의미 속성이나 수어가 물리적으로 구성되는 방법에 따라 수어의 반복 횟수가 의미 변별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

어떤 수어는 반복이 의미 변별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외우다>/<기억>의 반복 횟수가 1회, <가르치다>/<교육>의 반복 횟수가 2회로 동사나 명사가 동일하면서 품사가 통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수어에서 반복 횟수에 관계없이 품사가 통용되는 이런 유의 수어가 더 많다.

반복이 안 되는 수어로는 <유명하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나쁘다>, <이름> 등이 있다. 이들 수어 중에서 <유명하다>, <어리석다>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반복이 되지 않는 반면, <무식하다>처럼 단독으로 반복이 되지 않지만 비우세손(Non-signing hand)의 보조를 받으면 반복이 가능한 것도 있다. 비우세손의 보조란 예를 들어 한 손으로 <무식하다>를 반복하면서 다른 한 손은 index finger를 사용하여 앞에서 반원을 그리며 측면이동을 하는 것이다. <외우다>는 1회 수동만 가능한데 만약 <외우다>가 비우세손의 보조를 받고 수평이동을 하면서 반복하면 ‘이것저것을 외우다’가 되거나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다. <가르치다>는 index finger의 보조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평이동을 하면서 3회 이상 반복하면 ‘여러

6) ‘자연스럽지 않은 수어’란 이론테면 전문용어 수어 같은 것들을 말한다.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된다. 특히 <유명하다>, <어리석다>는 구조적으로 비우세손의 보조를 받을 수도 없어 반복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국수어의 반복 양상은 실로 복잡하다.

1) 반복에 의한 형태적 파생 연구

① 다른 품사를 만드는 반복

수어 동사의 음운 조건이 변하지 않고 다만 반복 횟수와 그 동작의 크기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로 여기에 동사-명사쌍이 있다. 동사-명사쌍이란 예를 들어 (그림5)의 <앉다>/<의자>와 같은 것이다. <앉다>는 1회 수동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 동작 크기는 큰(long) 반면 <의자>는 수동의 동작 크기가 작으면서(short) 반복 횟수가 2회이다. <앉다>/<의자>는 양손의 음운 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동에서 반복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 그 동작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에 따라 명사-동사가 구별되는 경우이다. 반복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 또는 그 동작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에 따라 동사-명사가 구별되는 한국수어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⁸⁾.

-
- 7) (그림5)의 <앉다a>와 (그림6)의 SIT을 비교해 보면 (그림5)의 <앉다a>는 작게 동작을 하도록 그려 놓고 있으나 (그림6)의 SIT은 동작을 크게 하도록 그려 놓았다. 수어 동사의 동작 크기는 대개 크게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그림5)의 <앉다a> 그림은 맞지 않는다. 차후 <앉다b>와 같은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8) 실제로는 반복 횟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어 사용자에게 따라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르다>는 1회 동작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람에게 따라 손을 앞으로 밀어가면서 자르는 동작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위>는 제자리에서 2회 반복하는 것은 사람,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바꾸다>-<바꿈>쌍도 마찬가지다.



(그림5) <앉다>/<의자>의 동사-명사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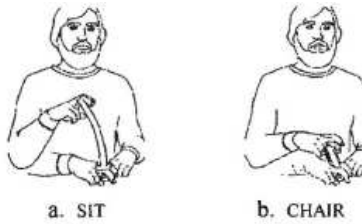


Figure 1. Verb/Noun pair (From Supalla and Newport 1978)

(그림6) SIT/CHAIR의 동사-명사쌍, Wilbur(2005)에서 재인용

동사	명사	동사	명사
<가위로 자르다>	<가위>	<배가 가다>	<배>
<눚다>	<눚시>	<비행기가 날다>	<비행기>
<냄새를 맡다>	<냄새>	<앉다>	<의자>
<말하다>	<말>	<전화를 걸다>	<전화>
<문을 열다>	<문>	<책을 펴다>	<책>
<바꾸다>	<바꿈>	<친하다>	<친구>

(표1) Verb-Noun pairs in KSL⁹⁾

(그림6)와 같이 미국수어도 동사-명사쌍이 존재한다. 미국수어의 (그림6)

9) 『수어사전』과 일치한 부분은 <앉다>/<의자>, <눚다>/<눚시>, <친하다>/<친구>이고 이외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1)은 실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FLY/AIRPLANE, OPEN/DOOR, GO-BY-BOAT/BOAT, TO TELEPHONE/TELEPHONE¹⁰⁾ 등에서 한국수어와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아래 (표2)는 많은 나라의 수어에서 동사-명사쌍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¹⁾. 최근 태국 수어(TSL)에서도 verb-noun pairs가 논의되었다. V/N쌍의 관계에 대하여 Supalla & Newport(1978), Brentari(1998)에 의해 처음을 논의되었다. 그러나 V/N쌍이 될 수 있는 수어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다(Wilbur, 2005). 그리고 Bouchard et al.(2003)과 Johnston(2001)은 유도된 상황에서 V/N쌍을 관찰한 후 V/N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V/N쌍의 수동의 음운적 특징들이 발화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하고 약화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일관성의 문제가 (표1)의 V/N쌍에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Language	Frequency		Length		
	Single	Repeated	Long	Short	
ASL	V	N V	V	N	Supalla and Newport (1978)
LSF			V	N	Moody (1983)
AUSLAN	V	N		N	Johnston (2001)
NZSL	V	N			Collins-Ahlgren (1990)
LIS		N	V	N	Pizzuto and Corazza (1996)
LSQ	V	N	V	N	Bouchard <i>et al.</i> (2003)

(표2) Movement in Phonologically Distinct V/N Pairs(Amélie Voghel, 2005)¹²⁾

(표2)에서 Moody(1983)은 Length의 측면에서만 수동을 다루었고, Collins-Ahlgren(1990)은 빈도수(Frequency)의 측면에서만 수동을 다룬 문제

10) 구글 검색창에서 verb-noun pairs으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11) ASL : American Sign Language
 LSF : French Sign Language
 AUSLAN : Australian Sign Language
 NZSL : New Zealan Sign Language
 LIS : Italian Sign Language
 LSQ : Quebec Sign Language

12) 본연구에서는 'Length'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차후로 미루어 놓았다.

접미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명사와 동사가 길이와 빈도수에서 항상 다르게 나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동사의 빈도수가 single이거나 Length가 long이고 명사의 빈도수가 repetition이거나 Length가 short이다. 한국수어도 (표2)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② 복수형을 만드는 반복

한국어의 수 표현은 문법 범주로 발달되지 않은 언어이다. 한국어의 수 표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규칙성은 찾기 어렵다(고영근, 구본관, 2008).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복수 표지는 접미사 ‘-들’이며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수어도 복수형 접미사 ‘-들’에 해당하는 복수 표지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수어의 문법체계에는 접사 자체가 없다. 여기 수 표현 접사뿐만 아니라 주격 조사라든가 동사 어간에 붙는 어미도 없다. 그렇게 접사가 없는 언어인 한국수어에 접사 형태의 복수 표지로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수어 <여러 가지>¹³⁾가 체언 뒤에 와서 복수형을 표현하는 용도로 널리 사

13) 이번 연구를 하면서 전문용어사전에 <여러 가지> 외에 <우리>가 등재돼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표제어로는 ‘들’로 되어 있는데 수어는 <여러 가지>, <우리>로 되어 있다. 복수 표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복수형 표지로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또 전문용어사전에 ‘안녕하세요’가 등재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를 세 번 반복한다고 설명해 놓고 있다. 아마 ‘들’은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참고해 보기를 바란다.

http://sldict.korean.go.kr/front/sign/signContentsView.do?origin_no=19792&top_category=SPE&category=&searchKeyword=%EB%93%A4&searchCondition=&search_gubun=&museum_type=00¤t_pos_index=2

이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동사의 반복형과 같다. 그런데 ‘안녕하세요’를 3번 반복할 때 제자리에서 3번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향해서 옆으로, 즉 반원(semicircle)을 그리고 수평이동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하고 얼굴도 인사를 받는

용되면서 한국수어 문법체계 내에 들어와 고착화 되었다.

한국수어에서 체언 뒤에 <여러 가지>가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 수 표현은 한국어 문법 형식에서 차용했을 것이다. 한국어의 복수 표현 형식을 본떠서 한국수어도 체언 뒤에 <여러 가지>가 와서 복수 표현이 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수어의 문법체계가 서로 다른데 체언 뒤에 복수 표지가 오는 점은 한국어나 한국수어가 같고, 한국수어가 본래 접사가 없는 언어인데 한국어와 같이 접사로서 복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수어의 문법체계 내에서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어는 본래부터 복수 표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반복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Fischer(1973)도 반복(repetition)으로 만들어진 ASL의 명사가 복수 명사가 되거나 질량명사가 된다고 하였다. Pfau & Steinbach(2005)도 독일수어의 반복을 연구하면서 반복이 독일수어의 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③ 명사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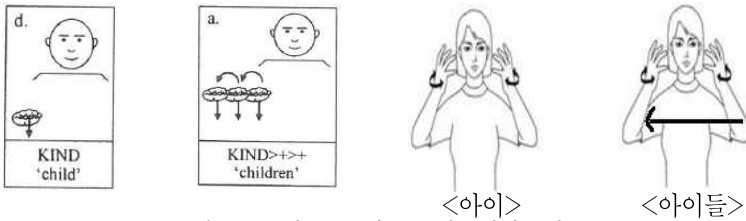
명사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 명사의 복수형을 만든다. 한국수어에서 명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어들은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사람><사람>, Fischer(1973)의 표현 형식을 빌리면 <사람>+++로 나타내어 ‘사람들’이라는 복수 명사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Rubino(2005)의 full word lexical reduplication과 같다. 미국수어, 독일수어, 태국수어도 이런 식으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고 있는 점은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Fischer(1973)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를 3회를 하나 <사람>++++의 +를 4회 하나 의미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동일한 복수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명사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복수형을 만들려고 할 때 측면이동

사람을 향하면서 해야 한다. Wilbur(2005)의 견해로는 ‘to each of the three’에게 인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수평이동)이 필수성분으로 가지게 된다. (그림7)은 독일수어와 한국수어의 ‘아이’와 ‘아이들’이다. 이 두 나라의 수어가 다르지만 옆으로 수평이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방법은 같다. 이렇게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명사를 복수화 하는 것이다. 미국수어의 CHILD/CHILDREN도 (그림7a)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명사가 측면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할 때는 그 반복 횟수와 관계없이 그 의미 변화는 없다.



(그림7) DGS의 KIND와 KSL의 <아이> 비교

<돌>, <나무>, <풀> 등의 수어 명사의 반복에 의한 복수화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동사-명사쌍이 되는 수어들도 3회 이상의 반복으로 복수 명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동사-명사쌍의 반복은 약간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표1)에서 <앉다>는 동사인데 그 <앉다>를 제자리 2회 반복하면 <의자>가 되며 그 <의자>를 측면이동을 하면서 3회 이상 반복하면 중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의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중의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복수형인 ‘의자들’ 표현이 가능하며, 동사인 <피다>가 제자리에서 2회 반복하면 <책>이 되며, 그 <책>을 측면이동하면서 3회 이상 반복하면 ‘책들’을 나타내게 된다. 반면 <말하다>의 2회 반복은 ‘말, 언어’가 되지만 <말하다>를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은 명사의 복수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다’를 나타내고, <바꾸다>를 2회 반복하면 ‘바꿈’이 되지만 3회 이상을 제자리에서 반복하면 ‘자주(여러 번) 바꾸다’를, 측면이동을 하면서 3회 이상일 때에는 ‘여러 물건들을 바꾸다’거나 ‘이것저것을 바꾸다’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동사-명사쌍이 측면이동을 하면서 3회

이상의 반복으로 복수화가 되는 것들이 있지만 복수화가 가능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로 파생이 되는 것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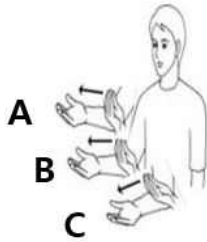
④ 동사의 반복

동사의 반복은 동사의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형, 필수부사어인 간접목적어의 복수형, 주어를 복수화 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한국어의 동사 중 논항인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모든 동사는 목적어의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 명사의 반복은 명사 자신의 복수형을 만들지만 동사의 반복은 동사 자신이 아니라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형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그림8)과 같이 <사랑><사랑>+++에서 <사랑>을 측면이동을 하면서 3회 이상 반복을 하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된다. <사랑>을 3회를 하나 4회를 하나 의미 차이는 없다. 차이가 있다면 양적인 차이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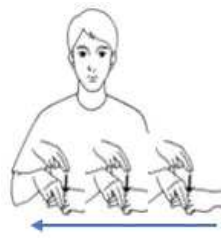
동사의 반복은 또한 필수부사어(간접목적어)의 복수형을 만든다. 예를 들어 (그림9)와 같이 <사랑><주다>+++에서 <주다>를 측면이동하면서 3회 이상 반복을 하면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다’가 된다.



(그림8)<사랑>+++



(그림9)<주다>+++



(그림10)<앉다>+++

동사의 반복은 또한 주어를 복수화 시키기도 한다. (그림10)과 같이 <사랑><앉다>+++에서 <앉다>를 측면이동하면서 반복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되는 것과 같다. <사람> 부분은 단수이지만 <앉다>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사람>을 복수화 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동사의 반복’은 측면이동을 필수성분으로 가지면서 반복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이동(Horizontal Movement 또는 sideward movement)에 대하여 Pfau & Steinbach(2005)는 수어의 반복에서 두 번째의 동작이 첫 번째 동작에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sideward reduplication’이라고 한다.

이러한 동사 반복이 측면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동일인에게 여러 번 반복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시키다>가 제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동일인에게 여러 번 시키는 행동을 나타내거나 <주다>가 측면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주는 행위’가 동일인에게 자주 또는 여러 번 이루어짐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동사의 반복이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형, 필수부사어의 복수형, <앉다>처럼 주어의 복수화 시키려면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Wilbur(2005)는 ‘distributiv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사의 반복을 설명한다. (그림11)은 ASL의 GIVE[distributive]가 each of them에서 each에 GIVE를 하는 배분적 의미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Wilbur(2005)의 [distributive]는 측면이동을 필수성분으로 갖는다. [distributive] 성분을 갖는 동사의 반복은 대개 배분적 의미를 가진다. (그림9)의 한국수어 <주다>도 미국 수어의 GIVE와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배분적 의미를 가지는 복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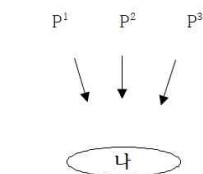
요약하면 동사의 반복이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형, 필수부사어의 복수형, 주어의 복수화가 되게 하려면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을 하여야 하고, 수평이동을 하면서 하는 동사의 반복은 대개 배분적 의미를 가진다. <사랑>, <주다>, <앉다> 등이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자체가 배분적 의미를 드러낸다. 각주 (12)의 ‘안녕들 하세요’는 이 ‘동사의 반복’ 유형에 속하며 ‘to each of them’에게 인사를 하는 배분적 의미를 가진다.



(그림11) GIVE[distributive]
'I give to each of them'



(그림12) <주다>



(그림13) '사람들이
나에게 주다'

그리고 (그림13)은 (그림12)의 손가락 끝이 화자인 본인에게 향하게끔 손목을 꺾어서, 3인칭인 점 P1, P2, P3에서 1인칭인 '나'의 방향으로 <주다>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향 전환 반복은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주다(Several people give it to me)'를 나타낸다. 그러한 사실은 일치동사(Agreement Verb)도 측면이동을 하면서 반복하면 동사의 논항인 목적어의 복수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⑤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반복

한국수어의 반복 중에서 명사화가 되거나 복수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을 갖는 반복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병>이 그렇다. <병>의 기본 수동 횟수는 2회이다. 만약 <병> 뒤에 다른 단어 <오다>, <있다>, <많다> 등이 오면 수동 횟수는 1회가 될 수 있다.



(그림11) 한국수어 <병>14

그러나 <병>의 수동 횟수를 3회 이상 연속 반복하게 되면 질환 관련의 ‘병’이 아니라 복잡한 일에 관련되었을 때 ‘아, 머리 아파’에서 ‘머리 아파’와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말하다>¹⁵⁾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말하다>의 1회 수동은 ‘말하다’, 2회 수동은 ‘말’이 되지만 3회 이상 반복을 하면 ‘말이 많다’가 되고, <지식>의 기본 수동 횟수인 2회 동작을 하면 그대로 ‘지식’이 되지만 3회 이상 반복하게 되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⑥ 반복에 의한 통사적 파생 연구¹⁶⁾

한국수어에서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 문장 유형에 대해서는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에 한정해서 논의한다. 최근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공동문, 허락문, 약속문, 감탄문, 경계문 등 8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영근·구본관 2008, 남기심 2001, 윤석민 2000). 한국어의 문장 유형에서 종결어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명령문은 종결어미 ‘-어라/-라, -게, -(으)십시오, -(으)오’ 등이 동사 어간에 붙어서 되고, 청유문은 종결 어미 ‘-자, -세, -ㅂ시다’ 등이 동사 어간에 붙어서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음성으로 실현될 때 명령형에는 명령의 어조, 청유형에는 청유의 어조가 곁들여져서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수어 명령문은 과장된 얼굴 표현과 빠르고 큰 동작이 수반되고 반복이 1회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어 청유문은 반복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세요>, <부탁>, <바르다> 등이 수어 문장 뒤에 붙음과 동시에 얼굴 표

14) 『수어사전』의 <병>도 ‘두 번 댔다 떴다’고 한다.

15) 『수어사전』의 <말/말하다/언어>는 모두 1회 수동 동작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수화』의 <말>은 2회 수동 동작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16) 문장 유형에 대한 농인들의 의견이 가장 분분한 부분이다. 필자는 서울, 대구, 전주, 광주 등지에 거주하는 농인들과 오랜 시간 영상통화를 통해 많은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농인들은 처음에는 다 그렇듯이 필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다가 차츰 타당성 있는 논의라고 인정해 주었다.

현도 청유형의 얼굴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평서문은 과장된 얼굴 표현과 동작이 없고 반복 횟수도 일반적으로 2회이다. 평서문의 반복은 1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회이다. 수어사전에서도 수어 동사의 반복 횟수는 2회로 가장 많다.

이와 같이 한국수어의 문장 유형은 반복, 다른 단어와의 결합, 여기에 과장된 동작, 얼굴표현, 입의 모양 등이 곁들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다른 단어와의 결합은 예를 들어 약속문은 (4L, C)의 <약속>, <맹세>, 허락문은 (5L, C)의 <허락>, <괜찮다>, 청유문은 <주세요>, <부탁>, <바르다> 등이 수어 문장의 끝에 붙음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의문문은 장세은(1999)에서 논의가 된 것처럼 미국수어과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도 <무엇>, <어디>, <누구>, <어떻게> 등이 문장의 끝에 붙음으로써 형성된다.

(4) ㄱ. 전주에 갈게

L. <전주><가다><약속>

C. <전주><가다><맹세>¹⁷⁾

(5) ㄱ. 전주에 오렴

L. <전주><오다><허락>

C. <전주><오다><괜찮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장 유형처럼 한국수어에도 8가지의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⑦ 명령문

명령문을 만드는 수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개 1회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그 1회의 수동 동작은 빠르면서 강하고 크게 한다. 그러한 동작이나 얼

17) <약속>에 비해 <맹세>가 의미자질 면에서 ‘꼭, 진심(진짜)’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 꼭 갈게’로도 쓰인다.

굴 표현(facial expression)이 과장되게 나타내어 명령형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얼굴 표현은 명령이나 금지에 걸맞은 표현이어야 한다.

(6) ㄱ. 돈을 쓰다.

ㄱ'. <돈><쓰다>

ㄴ. 돈을 써라!

ㄴ'. <돈><쓰다>

ㄷ. 만화를 제발 보지 마.

ㄷ', <만화><보다><말다>¹⁸⁾

ㄹ. 만화 보지 마!

ㄹ'. <만화><보다><말다>

(6ㄱ)과 (6ㄴ)은 의미적으로 다르지만 (6ㄱ')과 (6ㄴ')의 수어 문장은 같다. 그러나 (6ㄱ')의 <쓰다>의 수동 동작은 2회 반복해서 표현하지만, (6ㄴ')의 <쓰다>는 1회 수동을 하되 강하게, 빠르게, 크게 수동 동작을 해서 명령문을 표현한다¹⁹⁾. 물론 명령할 때 나타나는 얼굴 표현을 곁들여서 한다. (6ㄷ')의 <말다>는 1회 수동을 할 때는 문장 전체가 강한 금지의 표현이 되고, 2회 수동을 할 때는 문장 전체가 약한 금지를 나타내게 된다. 반면 (6ㄹ)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6ㄹ')의 <말다>도 따라서 1회 수동을 하되 강하게, 빠르게, 크게 한다. 이와 같이 1회 수동을 하되 강하게, 빠르게, 크게 하면서 금지에 걸맞은 얼굴 표현을 곁들이면 명령문이 형성될 수 있다.

18) 『수어사전』의 <말다>는 1회, 『한국수화』의 <말다>는 2회 수동을 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설명해 놓고 있다. 수어 교재 대부분에서 <말다>는 1회 수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거나 명령형 표현을 나타낸다. <말다>는 2회 수동을 할 수도 있고 3회 수동을 할 수도 있는데 2회는 약한 금지를 나타내고, 3회 이상의 반복은 금지를 청유하는 표현이 된다.

19) 『수어사전』의 <쓰다>는 1회 수동 동작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화』의 <쓰다>는 2회 수동을 하는 것으로 동작 설명을 해 놓았다. 기본형으로는 『한국수화』의 <쓰다> 설명이 맞다.

그러나 모든 수어는 과장된 1회 동작으로 명령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돕다>의 명령형은 1회 수동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²⁰⁾. 이 같은 명령문 형성에 제약이 있는 수어들은 (7ㄱ, ㄴ)의 <주다>, <가다>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명령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다>, <가다> 부분에서 1회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동작은 빠르면서 강하고 크게 하며, 과장된 얼굴 표현과 함께 한다.

- (7) ㄱ. <공부><가다> 공부해.
 ㄴ. <돕다><주다> 도와 주어라.

또 한국수어 <만들다>와 같이 어떤 문장 유형에서든 수동 횟수가 항상 2회인 수어도 있다. <시키다>는 어떤 문장 유형에서든 수동 횟수가 항상 1회이다. 어떤 문장 유형에서든 수동 횟수가 변하지 않는 수어로 명령문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수어의 기본 수동 동작을 하면서 그 수어 부분에서 얼굴 표현을 특히 과장되게 나타내면 된다. 여기서도 물론 수동 동작을 강하게, 빠르게, 크게 한다.

<만들다>는 1회 수동은 불가능하지만 3회 이상의 반복은 가능하다. <만들다>를 3회 이상을 제자리 반복하면 ‘무언가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만들다’라거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고, 수평 이동을 하면서 <만들다>를 3회 이상 반복하면 ‘여러 물건들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된다.

⑧ 평서문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이 생각하는 바를 단순히 진술하는 문장이다. 수어도 발화 과정에서 얼굴 표현이나 과장된 동작을 더하지 않고 발화하면 평서문이 된다. 수어에서 과장된 얼굴 표현이나 동작

20) 영상통화를 했던 많은 농인들도 <돕다>의 명령형은 단독으로 안 되고 <돕다><주다> 형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주다> 부분에 과장된 1회 동작이 있었다.

은 수어 문장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더하지 않고 발화하면 단순 진술을 하는 평서문이 되는 것이다. 평서문은 <웃다>, <맞다>²¹⁾ 등과 같이 2회 반복을 하는 수어도 있고, <틀리다>²²⁾, <(눈을) 뜨다>, <따뜻하다>와 같이 1회 수동을 하는 수어도 있다. 수어 <맞다>를 예로 들어 1회, 2회, 3회 반복할 때 의미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 ㄱ. 도와 주는 게 맞지.

ㄴ. 맞아! 나도 들었어.

ㄷ. (그 얘기는) 정확히 맞아.

(8ㄱ)과 같은 경우는 보통 2회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반복한다. 공감을 표시하거나 이치를 따지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상황에서 <맞다>를 2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8ㄴ)의 ‘맞아!’는 3회 반복하되 동작을 빠르고 작게 3회 반복한다. 상대의 말에 동의를 표시할 때 보통 3회 반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3회 이상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8ㄷ)는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1회를 수동을 하되 slow motion으로 힘 있게 턱에 갖다 댈다. (8ㄷ)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담화 상황에 달려 있다. 하나는 ‘정확히 맞아’를, 다른 하나는 ‘실화야’ 또는 ‘거짓이 없는 이야기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21) 수어 <맞다>는 『웹사전』의 동영상에서는 1회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 수어』에서는 ‘턱 중앙에 두 번 갖다 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수어』의 설명이 옳다.

22) 수어 <틀리다>는 『웹사전』의 동영상과 수형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 동영상에서는 1회 수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형 설명에서는 ‘두 번 튕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튕기는 게 맞다. 수어 <틀리다>를 두 번 튕기면 ‘혹시’가 되거나 경계문을 만드는 접미사형 수어가 될 수도 있다. <틀리다>를 두 번 튕겨서 ‘혹시’가 되거나 경계문을 만드는 접미사형 수어는 『수어사전』 또는 『웹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⑨ 청유문

청유문은 일반적으로 2회나 3회 이상의 반복이나 slow motion으로 이루어진다. 반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윗몸은 앞으로 약간 숙이기도 하고, 얼굴은 부탁이나 사정을 하는 얼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청유 표현을 나타내려면 (표2)의 ‘short’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반복을 3회 이상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림14, 15, 16)과 같은 수어를 문장 끝에 와서 붙여서도 청유문이 될 수 있다.



(그림14)<주세요>



(그림15)<부탁>



(그림16)<바르다>²³⁾

(그림14)는 타인이 1인칭인 본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요청할 때 쓰인다. (그림14)의 <주세요>는 보통 예의를 갖춰서 사용하는데 2회 반복할 때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의미가 드러나고, 3회나 그 이상 반복할 때는 간곡함이 포함된 의미가 드러난다.

위와 같이 3회 이상의 반복만으로 청유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림15, 16)이 문장 끝에 와서 청유문을 만들기도 한다.

23) 『웹사전』에서 <바르다>는 ‘바른 생활, 바른 말’에서 ‘바른’과 같은 의미로 풀어 놓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는 얼굴 표현과 slow motion 여부에 따라 ‘바른 생활’의 ‘바른’과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청유형 문장을 만드는 접미사형 수어가 되기도 한다. <부탁>도 본래의 ‘부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르다>와 마찬가지로 청유형 문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접미사형 수어가 될 수 있다. 이는 『웹사전』에서 표제어 <-세요>가 <부탁>과 음운적으로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유문을 만드는 접미사형 수어 <바르다>는 『수어사전』 또는 『웹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9) ㄱ. <월급><주세요>

ㄱ'. (저에게) 월급을 주세요.

ㄴ. <월급><(철수가 있는 쪽으로) 주다><부탁>

ㄴ'. 철수에게 월급을 주세요.

ㄷ. <월급><(철수가 있는 쪽으로) 주다><바르다>

ㄷ'. 철수에게 월급을 주세요.

(9ㄱ)의 <주세요>는 화자인 본인을 위해 타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9ㄴ)의 <부탁>은 화자가 제3자를 위해 청자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9ㄷ)의 <바르다>는 인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인다. <바르다>는 <주세요>, <부탁>보다 간곡함 정도가 더 크고 인칭에 구애 받지 않고 쓰일 수 있다는 정도일 뿐 청유의 의미를 타나낸다는 점에서 <주세요>, <부탁>과 동일하다. 다만 <주세요>와 <부탁>은 반복을 통해 청유문이 만들어지고 반복횟수가 많을수록 간곡함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 <바르다>는 반복이 아니라 slow motion으로 이루어지며 slow motion이 길어질수록 자존심을 내려놓고 청유하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바르다>처럼 (그림12)의 <주다>도 slow motion으로 청유형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주다>는 <주세요>와 달리 예의를 갖추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때 사용되며, <주세요>는 반복으로 청유 표현을 하지만 <주다>는 slow motion으로 청유 표현을 한다. 또 <주다>는 1인칭, 2인칭, 3인칭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세요>는 1인칭인 본인을 위해 타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할 때 쓰인다.

이 <주다>는 1회의 slow motion 수동 동작을 하는 방법으로 청유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slow motion과 함께 얼굴 표현도 간곡함을 곁들여서 한다. <주다>의 slow motion은 일반적인 <주다>보다 1.5배 정도 느리게 하면 된다. 그 이상으로 느리게 하는 것은 간곡히 청유하는 정도가 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주세요>는 1인칭 화자가 본인을 위해 타인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요청

할 때 쓰이기 때문에 (9L)의 <부탁> 자리에 와서 쓰일 수 없다. 화자가 제 3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청자에게 요구할 때 또는 청자에게 무엇을 할 것을 요구할 때 <부탁>을 문장 끝에 붙여서 사용한다.

4. 나가기

이제까지 한국어의 반복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농인들이 반복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법 표현을 하고 있음을 오랜 전부터 알고 있었다. 반복은 농인들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반복 뿐만 아니라 얼굴 표현, 과장된 동작, 다른 단어와의 결합 등으로 농인 끼리는 정밀한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모르는 청인들은 수어의 어휘수 등을 들어 수어의 표현 능력을 의문시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이 수어 문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한국어의 반복이 그럴진대 다른 나라의 수어에도 반복이 있을까 하여 문헌을 찾았는데 이미 오랜 전부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어에만 반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수어에도 공통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구어언어에서도 반복이 있고, 그러한 반복이 세계의 많은 언어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의 반복 양상이 구어의 그것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수어의 반복은 동사-명사쌍, 명사의 반복, 동사의 반복, 전혀 다른 뜻을 만드는 반복 외에 반복에 의한 문장 유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법체계에 걸쳐 있음을 알았다.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수어의 반복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반복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품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법 현상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에 대하여 내용을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요즘 농인들이 국어문법의 형식을 따르는 수어 표현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에 따라 수어

고유의 문법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인들은 본래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통해 다양한 문법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한 문법 이론서가 없어 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반복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국어문법의 형식을 차용한 복수 표지 ‘-들’의 수어 표현으로 <여러 가지>를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수어의 반복법을 정리하여 이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통해 농인들의 올바른 반복법 사용을 배워 수어 고유의 문법 표현을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어문법의 형식을 따르는 한국수어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수어가 된다. 이를테면 영어를 한국어 문법 형식에 맞게 사용하면 이상한 영어가 되는 것과 같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남기십(2001), 『현대국어 통사론』, 서울: 태학사.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중결법 연구』, 서울: 태학사.
- 장세은(1997), 「수화언어와 음운중첩현상」, 『언어학』제21호
- 장세은(1999), 「미국수화언어와 한국수화언어에서의 WH-의문문」, 『언어학』7권3호.
-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 국립국어원(2019), 한국수어웹사전,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2001), 『한국수화』, 도서출판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2018), 『한국수어』, 도서출판 한국농아인협회
- 정택진 외(2006), 『premium sign language』, 을지글로벌
- Amélie Voghel(2005), Phonologically identical noun-verb pairs in Quebec Sign Language(LSQ) : Form and context, *Toront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5: 68-75.
- Bouchard, D., C. Dubuisson and A.-M. Parisot (under press) "Categories in Langue des Signes Québécoise: Reflexions on Categorization Across Modalities". In *Categorization in Cognitive Sciences* . H. Cohen and C. Lefebvre (eds). New York: Elsevier.
- Carl Rubino(2005), 'Reduplication : Form, function and distribution' In Bernhard Hurch(ed.) *Studies on Reduplic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11-29.
- Collins-Ahlgren, M.(1990), "Word Formation Processes in New Zealand Sign Language". In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Linguistics*. Fisher et Siple (ed),

- vol.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79-212.
- Hassan, Irene &, Nurhadan Halud, Seymour A. Ashley, and Mary L. Ashley(1994), *Tausug-English Dictionary: Kabtangan Iban Maana*. Manila: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Nattaya Piriawiboon(2017), Reduplication in Spoken Thai and Thai Sign Language, *The 4th Ratchasud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bility, 26-27 July 2017, Ratchasuda College of Mahidol University, Thailand*.
- Pfau, R & Steinbach, M(2005), Backward and sideward reduplication in German Sign Language, In Bernhard Hurch(ed.) *Studies on Reduplic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569-593.
- Supalla, T and M. Newport(1978), How Many Seats in a Chair?: The Derivation of Nouns and Verb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Understanding Language Through Sign Language Research*, New York: New York Academic Press, pp. 91-131.
- Susan Fischer(1973), *Two processes of redupli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Foundation of Language* 9: 469-480.
- Wilbur, Ronnie(2005), A reanalysis of redupli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Bernhard Hurch(ed.) *Studies on Reduplic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595-623.

【Abstracts】

A study in terms of reduplication in Korean Sign Language

Lee, Youngjae

Korean Sign Language is a language used by Deaf who are active in the deaf community in Korea. Sign Language has a grammatical system unique to sign language and is a grammatical system that can not be seen in other spoken languages. One of them is the reduplication grammar. The reduplication is used throughout whole grammar in case of sign language.

There are a noun-verb pair, reduplication of nouns and verbs and some other reduplication in reduplic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A noun-verb pair is a pair that is distinguished by whether it is a single reduplication or a double reduplication without changing the conditions that make up the sign language. The reduplication of nouns refers to reduplication which becomes a plural form of the noun by repeating a noun becoming sign language twice or more times. The reduplication of a verb is a reduplication that is repeated several times as the verb is moved sideways. The other reduplication refer to repetitions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altered in sign language's original meaning.

Key words : Sign Language, KSL, ASL, DGS, reduplication, repetition,
noun-verb pair, noun reduplication, verb reduplication,
Sign language sentence type

이 논문은 2019년 10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